



저 산 너머엔 분명 부처님이 계신다



법흥사 적멸보궁

눈 ㉔ 영일 법흥사(法興寺)

단청도 현판도 없는 당우 하나가 여백 끝에 찍힌 낙관처럼 산기슭 한 편에 서있다. 극락전이다. 곧 사라질 당우다. 떨어질 때가 된 마른잎처럼 시간 끝에 매달린 당우는 대웅전으로 고쳐 지어질 예정이다. 겨울새가 날아간 하늘 끝은 차갑기만 하고, 이름마저 놓은 당우의 그림자는 무덤에 들었다. 부처님 진신을 모신 법흥사다.

법흥사는 643년(신라 선덕여왕 12) 당나라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돌아온 자장(慈藏; 590~658) 스님이 창건했다. 그 때는 흥녕사였다. 한강암 때 절중 스님이 중창하여 구산선문 중 사자선문의 중심 도량으로 삼았고, 이후 조선시대까지 소실과 중창을

반복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폐사 직전 까지 갔던 흥녕사를 1902년 비구니 대원각 스님이 법흥사로 개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내 차라리 계(戒)를 지키며 하루를 살지안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을사 자장. 당나라에서 돌아온 스님은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을 오대산 상원사, 태백산 정암사, 영축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에 다시 모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사자산에 모셨다. 하지만 부처님 진신을 정확히 어디에 모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의 적멸보궁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봉우리 넘어 어딘가에 모셨다고만 전해온다. 자장 스님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스님 두 분이 산길을 걷는다. 적멸보궁 가는 길이다. 그리고 보니 모든 길에는 정해진 곳이 있었다. 집에 가는 길, 절에 가는 길, 너에

게로 가는 길. 부처님께 가는 길. 우리는 늘 길 위에 있다. 집을 나서 절에 가고 절을 나서 집으로 가고, 너를 만나러 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 보궁 지붕 너머로 사자산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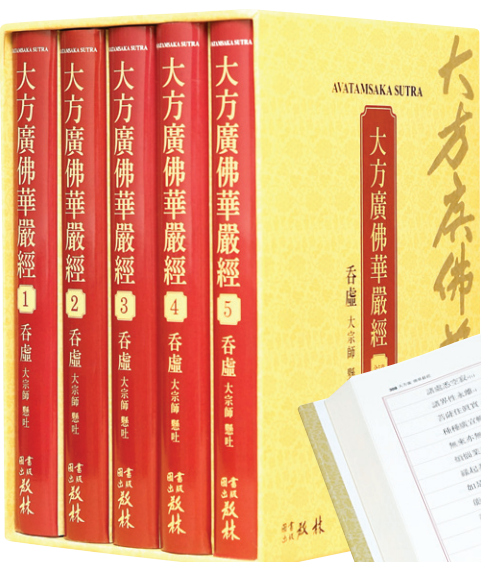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할 땐 법흥사에 가볼 일이다. 한 선지식의 깊은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분명 사자산 어딘가에 있을 부처님의 진신을 생각하면 찾고 있는 것은 분명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자산 기슭 어딘가에 분명 부처님이 있듯, 우리 마음 속 어딘가에도 부처님이 분명히 있음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자산 어딘가에 모신 부처님을 자장 스님만이 알고 있듯이 각자가 가진 부처가 어디 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을 또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햇살 사이로 찌리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제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